

## 신종플루 예방, 벤처기업과 함께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각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군 당국은 징병들의 휴가와 외박을 금지하고 많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개인별 모임이나 단체활동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신종플루 발생 환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는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하루 평균 발생환자가 8,857명으로 10월초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종플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들은 설 틈이 없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손세정제나 소독제 등 관련 제품 매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글\_ 편집부



### 수그러들지 않는 신종플루 공포

신종플루 사망자는 11월 기준 총 4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6천 명을 돌파했다. 또한 새로 발생하는 신종플루 감염 확진자가 하루 9,000명을 넘어 섰다. 특히 10월에만 21명, 그 중 마지막 주에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온이 낮아져도 실내환기를 자주 하고 기습기를 자주 청소해 줘야 신종플루 감염을 줄일 수 있다”면서 “동료나 가족 간이라도 손을 잡는 등 접촉을 줄이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전문가들에 의해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독감 수준으로 높지 않은데다 간단한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급격히 쌀쌀해지고 있는 날씨에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종플루에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방백신이나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신종플루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예방’에 대한 관심,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이어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신종플루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습관의 변화’를 만드는 것.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평소 비누와 온수로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손세척기나 공기청정 스프레이 등이 더해지면 좀 더 확실한 예방이 된다. 아울러 신종플루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바이러스로 감염되기 때문에 가습기 등을 이용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도 좋다.

대표적인 신종플루 예방 도구로는 손세척기가 손꼽힌다. 손세척기는 공공기관, 사기업을 막론하고 건물입구에 설치해 두는 추세다.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만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퍼진 예방 도구다. '신종플루 손소독제 전문회사'의 이름을 달고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세척기, 소독기, 세정제 등은 에탄올의 살균소독 원리를 응용해 다양한 종류의 세균 및 진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한다. 에탄올은 세균 내부로 침투해 세균의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세포막의 지질을 용해시켜 세균을 없앤다. 이밖에도 마스크, 공기청정기, 항균티슈 등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

####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은 올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이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대덕특구 바이오벤처들이 신종플루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 기술력까지 인정받으며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탈 업계 신규 투자금액 3,170억 원 가운데 일반제조업에 가장 많은 1,116억 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IT분야(29.8%)에 대한 투자가 가장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일반제조업체(35.2%)가 투자의 최고 수혜자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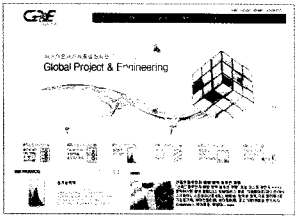
일반 제조업 중에서도 녹색제조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덕특구 바이오벤처기업들뿐 아니라 다른 벤처기업들에게도 자금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물백신 제조기업들도 환절기를 앞두고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특정 분야의 활성화가 씩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며 맞서고 있는 그들에게 응원이 필요할 때다. 감염자들이 더 늘어나기 전 미리미리 다양한 예방법을 개발·도입해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하자.



**(주)지피엔이  
신종플루 예방,  
방역 솔루션 개발로 '로하스 어워드'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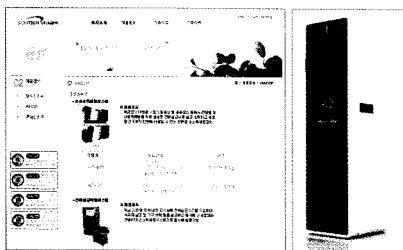


(주)지피엔이(대표 조일훈, www.gpne.co.kr)의 향균스프레이 지솔(G.Sol)이 사단법인 로하스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로하스 어워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제1회 로하스 어워드에는 로하스협회 김명자 협회장, 환경정책연구회 이경재 의원, 환경부 이병욱 차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리적 소비와 녹색기업 인식 확대를 위해 개최된 로하스 어워드는 의(衣)·식(食)·주(住)·공공서비스 4개 부문에 대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였다. 주최측은 지난 2월부터 1차 온라인투표, 4월에 개최된 로하스 박람회에서 2차 현장 심사와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종합 대상과 4개 부문별 최우수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로하스 어워드에 선정된 지솔(G.Sol) 향균제품은 천연향과 알로에성분을 첨가하였고, 무알코올/무독성/무자극으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시온텍  
친환경 살균제 '하이포크린' 선보여**



시온텍(대표 강경석, www.siontech.co.kr)이 내놓은 '하이포크린'은 친환경 살균제이다. 미산성수로 차아염소산 함량이 많아 저농도로도 살균효과가 크다. 차아염소산은 이온의 80배

살균효과가 있다. 이 제품은 미국 FDA에서 인체에 독성이 없는 물질로 인정을 받았으며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녹농균, 효모, 곰팡이에 살균 효과가 있다. 손 살균 소독 실험에서 하이포크린은 약제와 같은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실험에서는 현저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 하이포크린은 손소독은 물론 식재, 설비, 기구 소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시온텍이 생산하고 있는 신종플루 관련제품은 손소독기, 무독성살균소독제, 무독성향균물티슈 등이며 무포름알데히드, 무알콜, 무색, 무취로 알콜 냄새가 싫은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온텍 관계자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소독의 중요성이 알려진 이후 매출이 늘었다"면서 "지난 9월 출시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입소문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니아  
신종플루 확진검사 수요 대응에 총력**

신종플루 확진 장비 및 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주)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 www.bioneer.co.kr)가 관련제품



생산을 위해 비상체제를 갖추고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면서 확진 수요도 크게 몰린 가운데 확진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진단 키트 확보에 비상에 걸린 상태다. 수입업체 등도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키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종플루 확진에 사용되는 장비와 키트를 모두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주문량이 더 늘어날 경우에 대비,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해 진단키트를 포함한 신종플루 진단시스템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해 가고 있다. 생산 관련 설비의 추가 배치, 원료 재고 수준 확대 등과 함께 연구 인력의 생산부문의로 전환배치와 주말 근무를 통해 진단키트 수요를 맞추어 나가며 신종플루 진단키트 500만 테스트 분량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비할 계획이다.

**알엔테크  
입속 세균 꼼짝마! '베타레이드'**

알엔테크(대표 박영웅, www.rn-tech.com)가 내놓은 베타레이드는 신종플루로 손세정제와 소독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한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베타레이드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자연방사



성물질을 사용하는 스프레이형의 구강청결제다. 신종플루가 기침이나 대화 중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알려지면서 입속 세균을 잡는 '베타레이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알엔테크 관계자는 "우리회사 제품은 구강질환의 주요원인에 해당하는 치석생성 및 세균증식을 억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